

# 구조조정 들어가는 아시아나... 노딜 책임공방 본격화

## 금호-현산 M&A 최종 무산

채권단-금호, 자체 구조조정 협의  
에어부산·서울 분리매각 가능성 ↑  
현산,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전 예고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결국 10개월 만에 무산됐지만, 향후 '노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아시아나의 최종 매각 무산 사실을 밝혔다. 산은은 거래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인수 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채권단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아시아나의 모회사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의해 현산과의 관계를 중단하고, 자체 구조조정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달 26일 자 최고경영자간 면담에서 논의사항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채권단이 코로나19에 파

른 손실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다만 현산은 기존 주장대로 재실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4월 대비 악화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지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다. 양측의 계약금 반환 소송도 진행될 개연성이 있다. 소송은 법원에서 다투겠지만, 진행 상황을 보고 채권단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 등 채권단은 일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2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아시아나의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방식은 운영자금 대출 1조9200억원(80%), 영구전환사채(CB)인

수 4800억원(20%)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2014년 자율협약을 졸업한지 약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놓이게 됐다. 채권단은 경영 정상화를 이룬 뒤 향후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M&A는 결렬됐지만 향후 채권단·금호산업과 현산 간 책임 공방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말 현산이 아시아나를 총 2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금호 측에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계약금)으로 선지급했기 때문이다.

현산은 해당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산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은 당사가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다. 당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 관련 질권 해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 이행 통지에 대해 법적인 검토 이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송전을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던 일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각종 과장이 예상된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심각해진 아시아나는 인력 감축과 함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최 부행장이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가능성 관련 "기안금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 운항상태 등을 봤을 때, 시급하진 않을 듯하다. 시기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당장에 실업대란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자회사의 분

리 매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기안기금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설 아시아나와 달리, 기안기금을 받은 기업은 지원 기간 동안 계열사 지원에 자금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각각 올 상반기 기준 당기순손실 1056억원, 37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상태다. 사상 최악의 업황 속에서 자회사의 분리 매각은 불가피하다는 업계 전문가들이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원은 "원래 인수로 해결하려 했던 2조5000억원의 경우, 산은에 돈을 갚는다는 전제하에 들어가려 했던 자금이다. 그걸 감안하면 현산이(아시아나의) 정상화에 쓰려 했던 자금은 약 1조5000억원 정도였다. 그것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자회사의 분리 매각에 대해 "굳이 2개(에어부산·에어서울)를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지금 LCC들의 효율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분리 매각을 해서 추가로 돈이 들어와야, 산은이 처음에 아시아나에 직접 투자한 돈을 제외하고도 정상화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삼성SDS, 기업 협업 '브리티웍스' 사업 확대

5가지 핵심 서비스로 실시간 협업  
데이터 암호화 등 정보유출 방지



삼성SDS가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협업 및 자동화 솔루션 브리티웍스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삼성SDS

삼성SDS가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협업 및 자동화 솔루션 브리티웍스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브리티웍스는 전 세계 50만 삼성 임직원들이 사내의 협업과 업무 자동화에 사용 중인 솔루션을 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다. 실시간 협업을 위한 메일·메신저·미팅(영상회의)과 업무 자동화를 위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어시스턴트(대화형 AI 챗봇) 등 5가지 핵심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 번만 로그인하면 되는 통합 인증을 통해 ERP·SCM·MES·CRM 등 핵심 경영시스템과 연계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표준 응용프로그램 개발 환경(API)이 갖춰져 있다.

브리티 메일은 메일, 결재, 일정, 게시 등 일상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업무 포털로, 국내외 삼성 임직원들이 사용하면서 발전시킨 다양한 편의기능을 담고 있다.

브리티 메신저는 대화 중 클릭 한 번으로 영상·음성통화, 화면 공유가 가능한 기업용 메신저로, 다양한 사내 시스템과 연계하여 메시지 창에서 실시간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브리티 미팅은 원격 회의, 온라인 교

육,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영상회의 솔루션으로, 화면 공유 및 판서, 설문 조사 등 오프라인과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이 솔루션은 특히 기업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 권한설정, 데이터 암호화, 정보유출 방지 기능이 뛰어나다. 일례로 지난 5월 삼성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온라인 직무적성검사(GSAT)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브리티 RPA는 반복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능에 챗봇, 답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AICR), 텍스트 분석 등 AI 기술을 적용해 판단·심사·평가 등 복합업무 자동화까지 가능하게 해 준다.

브리티 어시스턴트는 대화형 AI 가상비서로 전문지식 학습 및 자연어 이해(NLU)를 통해 RPA와 기업 업무시스템을 연계하여 복잡한 업무를 쉽고 빠르게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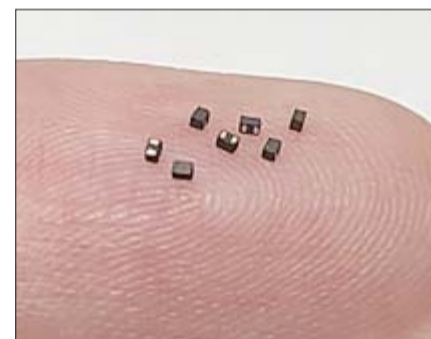
## 삼성전기, 세계 최소형 파워 인덕터 개발

두께 0.65mm, 반도체 조제공법 적용

삼성전기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파워 인덕터 개발에 성공했다.

13일 삼성전기에 따르면 파워인덕터는 배터리로부터 오는 전력을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전기자동차 등에 필수로 사용된다.

삼성전기가 이번에 개발한 파워인덕터는 '0804' 크기(가로 0.8mm, 세로 0.4mm)로 기존 모바일용 제품 중 가장 작았던 1210크기(가로 1.2mm, 세로 1.0mm)에 비해 면적은 대폭 줄어들면서 두께는 0.65mm에 불과한 초소형 제품이다. 파워인덕터의 성능은 원자재인 자성체(자성을 지닌 물체)와 내부에 감을 수 있는 코



손가락 위에 얹혀진 0804 크기 파워인덕터.

일(구리선)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삼성전기는 MLCC(적층세라믹콘덴서)로 축적한 재료기술과 반도체용 기판 조공법을 적용해 기존보다 크기는 절반이상 줄이고 전력손실은 크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한화시스템, 양자암호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

양자암호 통신망 3년간 운영·검증

한화시스템이 미래 양자컴퓨팅 시대에 필요한 '양자암호통신'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뉴딜계획' 일환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공모한 '양자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와 양자네트워크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한화시스템은 주관 기관인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자회사인 양자암호통신 세계 1위 기업 IDQ와 함께 산업분야의 수요기관으로 참여한다.

양자암호통신은 비대면 활동의 확산으로 인해 공공·민간 통신망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양자컴퓨터의 등장으로 기존 암호화 방식 및 보안 체계가 위협받게 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

는 차세대 보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내 양자암호 통신망을 서울 여의도 본사와 죽전 데이터센터 전용망에 구축하고,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보안성·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한화시스템 ICT부문은 9월 중순부터 비대면 업무방식인 스마트워크를 시행하면서 가상데스크톱(VDI)에 양자암호통신망을 연동해 보안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40여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

LG유플러스는 오는 15일 카카오톡 V X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홈트레이닝 전문 서비스 '스마트홈트'를 모바일에 이어 IPTV 플랫폼 'U+tv'에서 신규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U+tv용 스마트홈트 출시에 따라 LG유플러스의 IPTV 고객은 맨손 근력운동과 스트레칭은 물론, 필라테스, 요가, 골프, 복싱, 댄스, 성장체조, 다이어트 등 유명 강사가 알려주는 40여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대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U+tv용 스마트홈트는 UHD2, UHD3 셋탑박스에서 지원하며, 지원 모델



LG유플러스는 오는 15일 카카오톡 V X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홈트레이닝 전문 서비스 '스마트홈트'를 모바일에 이어 IPTV 플랫폼 'U+tv'에서 신규 출시한다. /LG유플러스

은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셋탑박스를 이용하는 U+tv 고객에게는 스마트홈트의 모든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